

CR 2007 - 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2007. 4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2007. 4

류 건 식 · 김 동 겐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요약 >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예상외로 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퇴직연금 전환 및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퇴직연금 전환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 ① 실질적인 연금세제 혜택이 주어지도록 소득공제한도 대폭 확대 ② 사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퇴직일시금 수령요건 강화 ③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의무화 검토 등
 -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 ① 보험계리사에 의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의무화 ② 지급보증제도의 조기 도입 ③ 수탁자배상책임 보험제도 도입 등
-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역시 근로자 및 기업의 니즈에 부합한 퇴직연금 서비스 및 상품개발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보험회사는 타금융권과의 상품제휴 등을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괄서비스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익성위주의 상품개발과 더불어 연금자산운용의 전문인력 양성, 전문운용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함.
 - 특히 중소형 보험사는 신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전략과 기존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 전환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목 차 >

I. 검토배경	1
II. 퇴직연금 운용실태 및 평가	2
III. 보험권의 퇴직연금 운용성과	11
IV. 보험회사 대응과제	16
V. 결론	18

I. 검토 배경

-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됨.
 - 미국 등 선진국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1년이 미래의 퇴직연금 운용패턴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이라 보고 퇴직연금제도 운용실태를 심도있게 평가하여 왔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역시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패러다임 변화와 운용패턴**을 보여 주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지난 1년간 퇴직연금 운용실태 데이터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주의 니즈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방향 수립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특히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융권 및 보험권별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등을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여 보고, 이에 부합한 보험회사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됨.**
 - 다만 과거 퇴직연금 운용실적을 기초로 한 분석은 향후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그 수준여하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본 보고서는 **금융권별로** 퇴직연금 종류별 점유율, 퇴직연금 적립금 실태 등을, **보험권별로** 기업별 계약체결 성과, 보험상품 운용성과, 퇴직연금 전환 성과 등을 분석하고, **보험회사의 대응과제**를 모색하였음.
 - 분석은 감독당국에서 공표한 데이터 및 감독당국의 내부보유데이터(협조) 등에 의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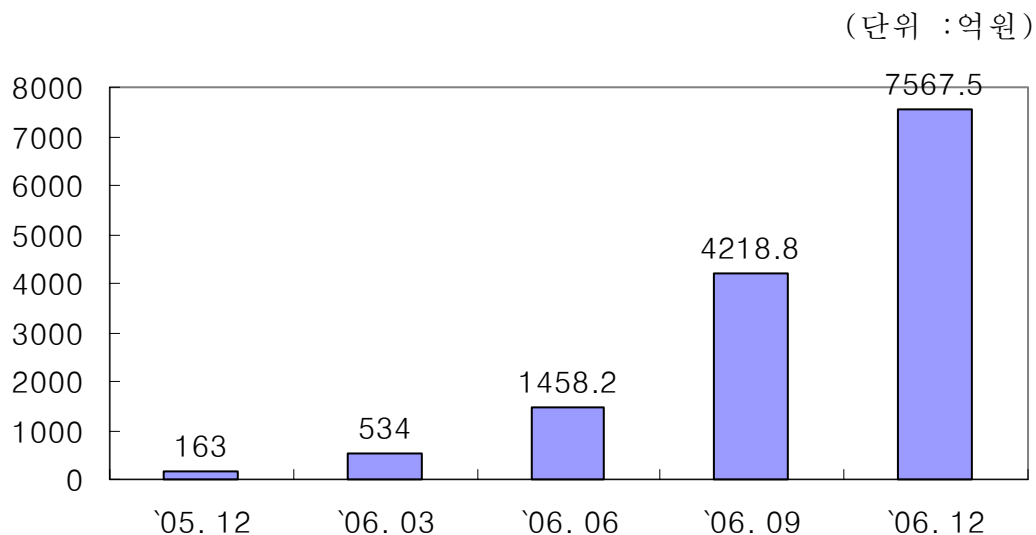
II. 퇴직연금 운용실태 및 평가

1. 운용실태

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05년 12월 163억원에서 2006년 12월말 현재 7567.5억원으로 증가하여 2005년 12월 대비 46배의 증가추이를 나타냄.
- 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면에서는 뚜렷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 12월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림1>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실태



- 금융권별로 적립금 점유율 비교시 2006년 12월 현재, 은행권 37.8%, 보험권 54.0%, 증권사 8.1%의 점유율을 보여 보험권이 은행 및 증권사에 비해 높은 점유율 비중을 보임.

- 은행권의 적립금 점유율은 2006년 6월(68.1%)이후 점점 낮아져 2006년 9월 31.5%, 2006년 12월 37.8%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보험권은 2006년 6월 20.9%에서 2006년 12월 54.0%로 증가추이를 보임.
 - 증권사의 경우, 대략 10%대의 적립금 점유율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은행권 및 보험권에 비해 퇴직연금시장에서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음.
- 보험권의 경우, 2006년 6월 이후 손보사의 적립금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생보사의 적립금 점유율은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표1> 금융권별 적립금 점유율 실태

(단위 : %)

구분		2005.12	2006			
			3월	6월	9월	12월
은행		60.6%	67.9%	68.1%	31.5%	37.8%
보험	생보	23.4%	21.8%	19.3%	36.6%	38.1%
	손보	5.8%	2.4%	1.6%	25.1%	15.9%
	합계	29.2%	24.2%	20.9%	61.7%	54.0%
증권		10.4%	7.8%	11.0%	6.8%	8.1%
전체		100%	100%	100%	100%	100%

나. 퇴직연금 종류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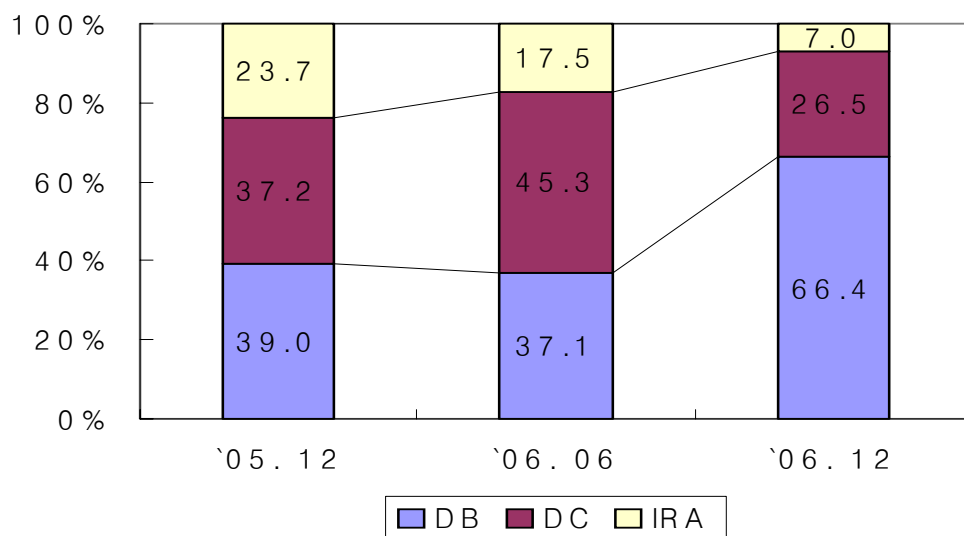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근로자 및 기업은 DC형 퇴직연금보다 DB형 퇴직연금을 보다 선호하여 **DB형 퇴직연금중심으로 퇴직연금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 시행 첫 해인 2006년 상반기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점유율이 높았으나, 하반기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점유율보다 DB형 퇴직

연금 점유율이 높게 나타남.

- 개인퇴직계좌(IRA)의 점유율은 2005년 12월 23.7%, 2006년 12월 7.0%로 DC형 퇴직연금보다 높은 감소 추이를 보여, 퇴직연금시장에서 뚜렷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2> 퇴직연금 종류별 점유율 실태

(단위 : %)



- 퇴직연금 종류별 점유율을 금융권별로 세분화하는 경우, 은행은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점유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보험사의 경우 DB형 퇴직연금 점유율이 다른 퇴직연금의 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특히, 손보사의 DB형 퇴직연금 점유율이 생보사의 DB형 퇴직연금 점유율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생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DC형 퇴직연금 및 IRA의 점유율은 낮은 수준임.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순으로 개인퇴직계좌의 점유율이 높고 증권사는 DC형 퇴직연금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DC형 퇴직연금 점유율은 은행보다 증권사가 높으나 IRA 점유율의 경우 은행 18%대, 증권사 0%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표2> 금융권별 퇴직연금의 점유율 실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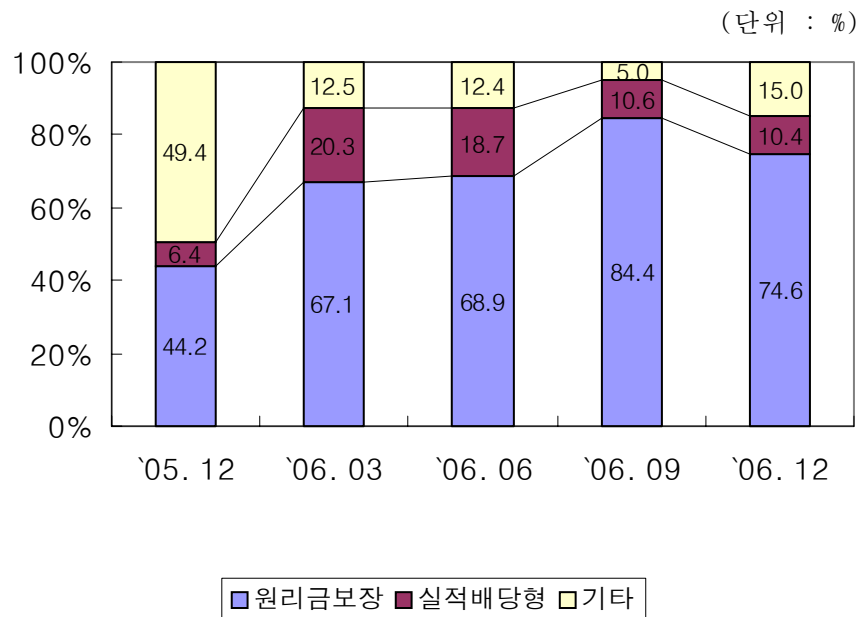
구분	년/월	DB	DC	IRA
은행	'05. 12	32.9	28.2	38.8
	'06. 03	30.1	33.4	36.5
	06	32.1	43.4	24.5
	09	31.1	46.2	22.7
	12	41.8	40.3	18.0
보험	'05. 12	52.9(96.2)	45.8(3.8)	1.2(0.0)
	'06. 03	39.3(85.8)	55.1(12.8)	5.6(1.4)
	06	63.5(59.6)	32.3(35.8)	4.2(4.5)
	09	84.6(97.4)	14.5(2.0)	1.0(0.6)
	12	86.2(94.3)	13.0(5.3)	0.7(0.4)
증권	'05. 12	11.0	89.0	0.0
	'06. 03	13.5	86.0	0.5
	06	18.6	81.3	0.1
	09	17.7	82.0	0.3
	12	32.7	67.1	0.1

주 : ()은 손해보험 점유율

다. 퇴직연금 운용상품별 점유율

-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은 대체로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차원에서 원리금 보장형상품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2006년도의 실적배당형 상품 점유율은 6.4%~20.3%, 원리금 보장형 상품 점유율은 67.1%~84.4%인 것으로 나타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3> 운용상품별 점유율 실태



□ 금융권별로 볼 때 전체 적립금액 중 은행권이 37.8%(2861억원), 보험권이 54.0%(4091.1억원), 증권사가 8.1%(615.4억원)을 운용함으로써 보험권이 전체 적립금액의 50%이상을 운용하고 있음.

□ 원리금 보장형상품 적립금 (2006년 12월 기준)의 62.9%를 보험권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증권사는 각각 35.0%, 2.1%만이 운영되고 있음.

○ 생보사는 2005년 12월 36.7억원, 2006년 12월 2346.9억원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적립금을, 손보사는 2005년 12월 9.5억원, 2006년 12월 1202.4억원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음.

○ 증권사는 2005년 12월 1.4억원, 2006년 12월 120억원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적립금을 운영하여 운용실적이 미미함.

<표3>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5.12	2006			
				3월	6월	9월	12월
원리금 보장	은행		24.6	244.1	713.0	1057.8	1975.1
	보험 (금리연동형)	생보	36.7	99.5	235.3	1386.3	2346.9
		손보	9.5	12.9	23.9	1059.1	1202.4
		계	46.2	112.4	259.2	2445.4	3549.3
	증권		1.4	1.9	32.3	59.3	120.0
원리금보장 합계(A)			72.2	358.4	1004.5	3562.5	5644.4
실적 배당형	은행		3.8	59.3	131.9	196.8	336.4
	보험 (실적배당형)	생보	1.5	10.2	21.2	34.6	58.6
		손보	0.0	0.1	0.2	0.6	2.0
		계	1.5	10.3	21.4	35.2	60.6
	증권		5.2	38.8	120.1	214.9	392.1
실적배당형 합계(B)			10.5	108.4	273.4	446.9	789.1
기타	은행		70.4	59.0	147.8	73.2	549.5
	보험	생보	0.0	7.0	24.4	123.0	481.1
		손보	0.0	0.0	0.0	0.0	0.0
		계	0.0	7.0	24.4	123.0	481.1
	증권		10.3	1.0	8.2	12.9	103.3
기타 합계(C)			80.7	67.0	180.4	209.1	1133.9
금융권별 적립금액 (합계)	은행		98.8	362.5	992.7	1327.9	2861.0
	보험	생보	38.2	116.7	280.8	1543.9	2886.7
		손보	9.5	13.0	24.1	1059.8	1204.4
		계	47.7	129.7	304.9	2603.7	4091.1
	증권		17.0	41.7	160.6	287.1	615.4
전 체 (A+B+C)			163.5	533.9	1458.2	4218.7	7567.5

주: 기타는 운용 등을 위한 대기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등)

- 실적배당형 상품 적립금 (2006년 12월 기준)의 경우 보험권은 60.6억원 (7.7%), 은행권은 336.4억원(42.6%), 증권사는 392.1억원(49.7%)을 각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종합평가

가. 제도 측면

- 퇴직연금 운용실태 분석결과, 예상외로 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즉 퇴직연금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퇴직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퇴직연금전환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 소득공제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연금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사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존재함.
 - 중간정산제도 또는 중도인출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함과 더불어 퇴직연금수령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일시금 수령요건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기적으로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보험계리사에 의한 책임준비금 적정성의 확인·검증 의무화가 요구됨.
 - 퇴직금 최우선 변제규정 등과 같은 수급권보호 장치만으로는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시 실질적 수급권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또한 근로자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절실

- 이와 더불어 정책적 차원에서 하이브리드형과 같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추진, 공사연금간의 상호연계성 도모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퇴직연금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나. 운용 측면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면에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06년 12월 말 현재 8,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퇴직연금기금에 의한 주식시장 활성화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통해 볼 때 퇴직연금시장은 단기적으로 보험권(특히 생보사)과 은행권간의 경쟁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 도입 이후 생보사와 손보사간의 적립금 점유율 격차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향후 퇴직연금 시장에서 손보사 역할이 기대됨.
- 퇴직연금 종류별 점유율 측면에서, 향후 퇴직연금시장은 DB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재편되고, DB형 퇴직연금시장은 은행권이 보험권을 적극 추격하는 경쟁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IRA는 은행권 위주의 경쟁양상이, DC형 퇴직연금은 은행과 증권사간의 경쟁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DC형 퇴직연금 및 IRA에서의 보험회사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 및 연금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과 같은 퇴직연금시장 여건변화시 향후 DC형 퇴직연금 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운용상품 점유율 측면에서, 연금자산 운용에 따른 리스크부담 등으로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근로자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예: 분리계정형 GIC, 합성 GIC)이 도입·개발이 촉진될 것임.

- 이러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자산운용은 신탁제도의 미발달, 연금 자산규제의 강화, 고리스크상품 회피성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연금자산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고리스크 상품의 안정적 수익률제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처럼 30~40%의 실적배당형 상품 점유율 증가가 예상됨.
- 보험권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적립금액이 월등하게 높은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용상품의 다각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됨.
- 증권사에 비해 은행권의 실적배당형상품 적립금 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보험권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Ⅲ. 보험권의 퇴직연금 운용성과¹⁾

1. 기업별 계약체결 성과

□ 금융기관과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기업수(2006년 12월 기준)는 총 15,405개로 이중 대기업이 57개, 중기업이 1,918개, 소기업이 13,439개로 조사되어 절대적으로 소기업 중심의 계약형태를 띠고 있음.

○ 즉, 전체 퇴직연금계약중 87.2%가 영세한 소기업 중심의 계약형태를 띠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기업 및 중기업은 퇴직연금계약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4> 기업별 계약체결 성과(금융기관 기준)

(단위 : 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계
대기업	은행	7	5	0	12
	증권	5	8	0	13
	보험	24	8	0	32
	계	36	21	0	57
중기업	은행	466	863	0	1,329
	증권	50	154	0	204
	보험	164	221	0	385
	계	680	1,238	0	1,918
소기업	은행	675	2,031	8,883	11,589
	증권	54	648	8	927
	보험	202	536	393	1,548
	계	931	3,215	9,284	13,430
소계		1,647	4,474	9,284	15,405

주: 대기업은 300인 이상, 중기업은 300인 미만~20인 초과, 소기업은 20인 이하

1) 보험권별 퇴직연금제 운용실태와 관련된 데이터는 2006년 12월말 기준임

- 대기업은 DC형 퇴직연금보다 DB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DB형 퇴직연금 체결 기업 중 66.7%인 24개 기업이 보험권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권에 대한 대기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5개 대기업이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증권과 보험권에는 각각 8개 대기업이 계약을 체결함.
- 중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DC형 퇴직연금을 선호, 전체 중기업 1,918기업 중 64.5%인 1,238개 기업이 금융기관과 DC형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함.
- DC형 퇴직연금 계약은 은행권과 863개 기업이, 보험권과 221개 기업이, 증권사와 154개 기업이 체결하여 은행권과의 체결실적이 높음.
- 중기업의 경우 DB형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보험권보다 은행권을 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소기업 중 69.1%인 9,284개 소기업이 개인퇴직계좌를 선호하고 8,883개 소기업이 은행권과 개인퇴직계좌를 체결함으로써 소기업은 절대적으로 은행권중심의 개인퇴직계좌 선호 경향을 보임.

<표5> 기업별 계약체결 성과 (보험회사 기준)

(단위: 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계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생명 보험 (11)	대형 3사	20	103	102	4	97	159	0	0	359	24	200	620
	중소형사	0	22	32	1	77	284	0	0	6	1	99	322
	합 계	20	125	134	5	174	443	0	0	365	25	299	942
		279			622			365			1,266		
손해 보험 (7)	대형 3사	3	35	56	3	38	71	0	0	19	6	73	146
	중소형사	1	4	12	0	9	22	0	0	9	1	13	43
	합계	4	39	68	3	47	93	0	0	28	7	86	189
		111			143			28			282		

주: 대, 중, 소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의미하며 DB형 및 DC형에의 중복가입은 미고려

- 생보사의 경우, 생보사 전체 계약체결 1,266개 기업 중 대형 3개 생보사가 844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 **66.7%의 체결실적을 보임.**
 - 대형 3개 생보사는 전체 대기업 계약 체결기업 중 96.0%, 전체 중기업 전체 계약 체결기업 중 66.9%, 전체 소기업 계약 체결기업 중 65.8%의 체결실적으로 보여 대기업에서 높은 계약 체결실적을 보임.
 -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에서 대기업과 계약체결실적이 없고, DC형 퇴직연금에서 단 1개 대기업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대기업은 대체로 대형 3개 생보사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손보사의 경우, 손보사의 전체 계약 체결기업(282개) 중 대형 3개 손보사가 225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형 3개 생보사의 대기업 체결실적보다 높은 **79.8%의 체결실적을 보임.**
 - 이는 생보사 계약 체결 실태와 비교하여 볼 때 중기업과 85.7%, 소기업과 84.9%의 높은 체결실적을 보여 나타난 현상임.
- 종합적으로 보험사간 계약 체결실태를 비교하여 볼 때 손보사에 비해 생보사가 4배 이상의 계약체결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형 생손보사 모두 저조한 퇴직연금체결 실적을 보임.**

2. 보험상품 운용성과

- 생보사의 보험상품 적립금 운용실태를 보면, 전체 보험상품 적립금 운용금액 2,405억원중 **85.0%인 2,044.3억원이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금 운용금액인 것으로 나타남.**
 - 이율확정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퇴직연금상품 중 금리연동형상품의 선호도가 특히 높아, 전체 적립금액 중

64.0%인 1540.6억원이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임.

-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금액은 전체 적립금액 중 2.4%(58.1억원)이 그쳐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쟁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형 생보사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금액 중 0.7%(5.7억원),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액 중 6.8%(104.8억원)만이 운용됨으로써 중소형 생보사와 대형 3개 생보사간의 적립금 운용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남.

□ 손보사의 경우, 보험상품 적립금액이 생보사의 45.9%인 1,10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체로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중심**, 운용상품은 **금리연동형 상품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생보사와 달리 DB형 퇴직연금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실적이 없다는 점이며, 대형 3개 손보사와 중소형 손보사간 격차가 대형 3개 생보사와 중소형 손보사간 격차보다 크다는 점임.
- 이율확정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의 중소형 손보사 적립금 점유율은 각각 5.3%(0.8억원), 2.5%(27.8억원), 6.3%(0.1억원)로 낮은 수준임.

<표6> 보험상품 운용성과(적립금 기준)

(단위 : 억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계		
		확정	연동	실적	확정	연동	실적	확정	연동	실적	확정	연동	실적
생명 보험 (11)	대형 3사	790.4	1224.4	1.0	8.2	197.0	11.2	2.0	14.4	4.0	800.6	1435.8	16.2
	중소형사	0.1	25.8	2.6	5.5	78.7	39.1	0.1	0.3	0.2	5.7	104.8	41.9
	합 계	790.5	1250.2	3.6	13.7	275.7	50.3	2.1	14.7	4.2	806.3	1540.6	58.1
		2,044.3			339.7			21.0			2,405.0		
손해 보험 (7)	대형 3사	12.4	1001.3	0	0.9	54.7	0.8	1.0	3.5	0.7	14.3	1059.5	1.5
	중소형사	0.4	20.7	0	0.3	6.8	0.1	0.1	0.3	0	0.8	27.8	0.1
	합계	12.8	1022.0	0	1.2	61.5	0.9	1.1	3.8	0.7	15.1	1087.3	1.6
		1,034.8			63.6			5.6			1,104.0		

주: 확정, 연동, 실적은 각각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을 의미

3. 퇴직연금 전환성과

- 대형 3개 생보사는 적립금액중 전환금액(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퇴직연금 전환비율)이 89.4%인 반면, 중소형 생보사의 퇴직연금 전환비율은 36.8%로 나타나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2배 이상의 전환비율차이를 보임.
- 생보사의 퇴직연금 전환비율은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 개인 퇴직계좌 순으로 나타나 DB형 퇴직연금 전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7> 퇴직연금 전환 성과 (전환비율 기준)

(단위 :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계
생명 보험 (11)	대형 3사	91.9	67.3	60.0	89.4
	중소형사	22.1	40.2	36.5	36.8
	생보계	91.1	59.8	59.5	86.8
손해 보험 (7)	대형 3사	77.6	64.6	89.7	77.1
	중소형사	0.0			
	손보 계	76.2	60.8	82.9	75.4
보험권 전체		86.4	59.9	64.2	83.5

주: 제도전환비율은 제도전환분/적립금액을, 손보계는 손보업계 전체평균을 의미

- 생보사와 달리 손보사의 경우 대형 3개 손보사의 전환비율은 77.1%인데 반해, 중소형 손보사의 전환비율은 거의 제로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중소형 손보사는 퇴직연금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처럼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신규 퇴직연금제도 가입만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IV. 보험회사 대응과제

- 퇴직연금운용실태 및 평가에 기초하여 현시점에서의 보험회사 SWOT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보험회사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표 8>참조).

<표 8> 보험권의 SWOT 분석

강점(S)	약점(W)
- DB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우위 -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보험권의 개발 노하우 우위 - 원리금보장형 상품 실적 증대 - 장기자산 운용에 대한 노하우 축적	-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경쟁열위 - 실적배당형 상품의 보험권 경쟁력 취약 - DB형 퇴직연금위주의 운용전략 -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권인식 부족
기회(O)	위협(T)
- 대기업, DB형 및 보험권 선호 - 공기업 등의 퇴직연금가입 독려로 퇴직연금시장 증대 - 퇴직보험 유예기간후 대기업의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 가속화 - 증권사의 DC형 일변도 현상 뚜렷, 은행의 다원화 퇴직연금전략으로 경쟁력약화	- DC형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 - 투자수익률제고 등에 의한 DC형 선호도 증대 - 은행 등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선점 가능성 존재 - 대형 보험사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사 경쟁력약화

□ 경영전략적 측면

- 전반적으로 보험회사는 DB형 퇴직연금위주의 경영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DC형 퇴직연금시장(IRA포함)에서의 경쟁력은 타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익성위주의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전문가의 양성 등으로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중소기업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이 보다 요구됨.

- 또한 중소형 보험사의 퇴직연금 전환비율이 미미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신규 퇴직연금 가입전략과 기존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 전환전략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 연금상품 개발 측면

- 보험권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은행권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비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험권은 근로자의 니즈에 부합한 특화된 원리금보장형 상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에서도 근로자의 니즈가 강한 금리연동형 상품의 개발로 타금융권과의 상품 차별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현행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쟁력이 증권사 등 타금융권에 비해 취약하므로 타금융권과의 상품제휴 등을 통해 보험권의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근로자 니즈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자산운용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연기금의 아웃소싱화, 전문운용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그리고 연금자산 운용의 전문인력확충 등이 요구됨.

□ 연금서비스 및 마케팅 측면

- 대기업은 보험권중심의 DB형 퇴직연금 선호, 중기업은 은행중심의 DC형 퇴직연금 선호, 소기업은 은행중심의 IRA 선호 현상이 뚜렷하여 보험권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미일의 보험회사처럼 일괄서비스체제에 의한 서비스강화(맞춤형 서비스제공)로 타금융권과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구사할 필요성이 있음.
- 대기업 편중의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대상을 보다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기존의 퇴직연금 마케팅 부문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기업별 담당 마케팅 조직체제로 재편할 필요성이 존재함.

V. 결 론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및 기업의 인식부족, 연금세제혜택 등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유인책 미흡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따라서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 근로자 및 기업, 정책당국, 금융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에 부응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퇴직연금제도 정착은 무엇보다도 정책당국의 의지와 지속적인 퇴직연금제도 개선노력 여하에 의해 좌우되므로 지난 1년의 퇴직연금제도 운용실적을 토대로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이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임.
 -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역시 근로자 및 기업의 니즈에 부합한 퇴직연금 서비스 및 상품개발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안 마련이 요구됨.
 -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역할강화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운용전략이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보험회사는 다양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개발속에서 타금융권과의 상품제휴 등을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 을 중심으로 한 일괄서비스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 즉 대기업위주의 DB형 퇴직연금 운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을 모색함으로써 중소기업시장에서의 운용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형 보험사는 신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전략과 기존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 전환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강화가 요구됨.

CEO Report 2007 -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발 행 일	2007년 4월 일
발 행 인	김 창 수
편 집 인	유 형 균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368-4273)로 하여 주십시오.